

서울시, 비강남권 학교에 2022년까지 1220억 투입

드론교육원 개소·미래형교육시설·예술활동 특별교실 등 60개교에 확충

서울시가 2022년까지 1220억원을 비(非)강남권 학교에 투입해 강남권보다 열악한 교육 인프라 수준을 끌어올린다. 노원구 소재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에 서울에서 처음으로 '드론교육원'이 11월 문을 열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코딩, 예술교육, 과학기술 관련 시설도 비강남권 60개교에 확충된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5일 '비강남권 학교 집중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4대 분야는 ▲고교-대학 연계 교육강화 ▲사회 저명인사, 전문가 111명 '명예교사단' ▲미래교육환경 조성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이다.

시는 비강남지역의 교육 인프라 확충에 집중 투자한다. 드론·AR(증강현실)·VR(가상현실)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교육이 이뤄질 드론교육시설(4개교), IT기반형 미래형교실(30개교), 예술활동 특별교실(27개교) 등을 조성한다.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에 직접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실외 비행장(운동장 1만3946㎡)과 연습장(잔디공장 6684㎡), 교육실(식당·기숙사 건물 1층 3041㎡)을 갖춘 드론교육원이 11월 조성된다. 1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금천구 금천문화예술정보학교, 관악구 서울산업정보학교, 동작구 서울공업고등학교에 각각 1억원을 투입해 '드론과화실'을 6월에 만든다. 드론 관련 시뮬레이션 실습, 드론 제작, 드론 비행 등이 가능한 교육공간이다.

미래형교실도 생긴다. 매년 30개 교씩 4년간 120개교 조성된다. 디지털교과서, 화상수업, 코딩교육 같은 다양한 IT기반 자원을 활용해 창의 수업이 진행된다. 교실 내 무선망이 설치되고 스마트패드, AR·VR·영상 장비 같은 디지털기기도 지원된다.

예술활동 특별교실은 매년 27개 교씩 4년간 108개교가 생긴다. 예술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 유휴 공간을 활용, 벽면거울, 음향·방송·조명시설 등을 설치해 전용 연습실, 공연장으로 꾸며진다.

비강남지역에 부족한 교내 생활 체육 시설이 확충된다. 올해 6개 학교(광진구 동의초·용마초, 도봉구 신창초, 노원구 한천초·상명중, 은평구 구산중)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체육관이 없는 비강남권 학교 29

개교에 실내체육관이 만들어진다. 도서관·북카페·헬스장이 모여 있는 다목적시설을 올해 2개 학교도 봉구 세그루 패션디자인고, 구로구 흥동중)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5개 학교에 건립한다.

시는 교육의 질 높이기에도 나선다. 4월부터 '대학-고교 연계 교육 강화'가 개설했다. 서울 소재 52개 대학과 비강남권 고등학교를 1대 1로 매칭, 우수 교수진이 직접 학교로 찾아와 빅데이터, 인문논술, 로봇제작 등의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강좌는 큰 틀에서 정규과정, 방과 후교육, 진로진학, 동아리활동 4개로 구성된다. 세부 강좌내용은 대학교 교 간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올해는 강북구 삼각산고, 구로구 구

일고 등 26개 고등학교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100개교가 지원을 받는다.

직종별 전문가·은퇴 저명인사 111명이 '명예교사단'으로 활동한다. 희망하는 중·고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학교와 명예교사를 매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3월 중 서울시 홈페이지에 명예교사단 매칭시스템을 구축해 4월부터 100개교에서 시작한다. 명예교사단 인력풀(111명)은 ▲경제생활(38명) ▲국제문화(21명) ▲예술체육(20명) ▲방송언론(12명) ▲법률의료(20명) 5개 분야에 전문직 은퇴자와 종사자들로 구성이 완료됐다. 모두 재능기부를 통해 참여한다. 3월 중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흐린 도심

서울 전 지역에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된 5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일대 도심 대기가 뿌옇다.

서울식물원 유료화 구간·관람료 내달 확정...개원 준비

12일부터 순차적 관람 통제 식물 추가 식재 등 시설보완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위치한 서울식물원의 모습.

지난해 10월 임시 개방한 서울식물원이 본격적으로 정식 개원 준비에 들어간다. 다음 주 열대관 통제를 시작으로 4월까지 구간별로 온실 관람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5월 서울식물원 정식 개원을 앞두고 3월부터 두달간 온실 내부 식재와 시설 보완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12일부터는 열대관, 4월 1일부터는 지중해관이 통제된다.

시는 관람 통제기간 동안 온실 내 12개 도시 콘셉트에 맞는 식물을 추가 식재한다. 관람로 개선과 식물 안내관 추가 등 시범 운영기간 중에 도출된 보완점도 개선할 예정이다. 또 4월30일까지 지중해관 보완작업을 모두 마무리하고 5

월부터는 온실 전 구간을 정상 운영할 방침이다. 4월 중 서울식물원 정식 개원일과 유료화 구간·관람료가 확정된다.

서울식물원은 지난해 10월11일 임시 개방한 이후 72일 만인 12월 21일 방문객이 1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3까지 183만명이 찾았다.

조희연 "한유총, 교육자로서 초심 잃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일 한국 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한유총이 개학 연기 방침은 철회했지만 이미 공익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행히 한유총이 입학 연기 루머를 접했다고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시민들께 드린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며

있으며 서울에 소재한 사단법인의 설립허가권은 서울시교육청에 있다. 조 교육감에 따르면 한유총은 회원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유치원 운영 관리에 관한 연구 및 유치원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했다.

조 교육감은 하지만 "한유총은 법인 집단의 사적 이익을 위해 학부모를 동원하고 유아와 학부모 등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사업

조희연 교육감 오늘 기자회견 통해 공식 발표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로 대전환 계기 되길"

"오늘 저는 시민들께서 저에게 위임해 주신 권한으로 사단법인 한유총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함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하면 한유총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청문과정을 거친 뒤 최종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의 근거로 민법 38조를 들었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한유총 사무실은 서울 용산구에

행위를 매년 반복해 왔다"며 "급기아는 유치원 개학이 임박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개학 연기를 발표했고 이를 실행에 옮겨 법인 설립 목적에 맞지 않고 다수 학부모와 유아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가 다수의 사립유치원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미래지향적인 길로 방향을 대전환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을 적극 수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에듀파인을 전향적으로 수용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사처우개선비를 지급하도록 서울시의회와 협의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노숙인 무단촬영 NO"

서울시, 1인 미디어 제작자에 요청

서울시는 5일 최근 거리 노숙인들에게 접근해 사생활을 허락 없이 촬영해 방송용 콘텐츠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1인 미디어 제작자 등에 자제를 요청했다. 얼마 전 개인방송 제작자가 노숙인의 사생활을 훑어 거리로 삼아 자극적인 제목으로 관심을 끌고 조회수를 늘리고자 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노숙인의 얼굴과 사생활이 여과 없이 공개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사전 동의 없이 촬영해 유포한 영상에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얼굴 등이 드러날 경우 엄연한 초상권 침해 범죄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시는 피해를 입어도 절차나 방법을 잘 몰라서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는 노숙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동의 없이 촬영·유포하는 것은 불법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지체 없이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가 다수의 사립유치원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미래지향적인 길로 방향을 대전환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을 적극 수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에듀파인을 전향적으로 수용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사처우개선비를 지급하도록 서울시의회와 협의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완도군 e-shop 원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